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사회는 특정한 공동체의식에 의해 합의된 집단일지라도 언제나 갈등을 동반하고 있다. 마을 단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도 갈등 없이 유지되는 경우는 없다. 흔히 갈등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구성원들에게 아픔과 슬픔이 되거나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특정 집단에 의해 갈등이 조장되어 이에 따른 이익을 취할 수 있다해도 그 갈등의 문제로 야기된 심각한 피해를 감당해야만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치 두 편으로

변증(辨證)의 몰락(沒落)

나뉘어 싸우는 것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갈등의 요인이 무엇 이든시간에 정치권에서 비롯된 갈등이 모든 시민들에게 전이가 되어 일상생활에서조차 해결 과정의 논증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펼치며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비하하거나 배척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된다. 이런 갈등이 심각한 문제라면 우선 정치권의 정정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시민 스스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정치권의 주장에 편승하는 데에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한다.

우리 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정해군기지, 제주 신 공항 건설 그리고 최근의 비자림로, 선흘리 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갈등에서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해결의 과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갈등을 겪는 것은 토론하는 법과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데 있다. 그러므로 갈등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일방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그리스의 제논,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해서 독일의 칸트와 헤겔로 이어지는 '변증법(辯證法, dialectic)'이 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그 뜻은 조금씩 다르다고는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사물과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플라톤의 사유 방법 그리고 칸트의 선험적 원리, 헤겔의 선험적 원리에 나타난 모순을 극복하려 한 관념론적 변증법이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한, 사물과 상황의 본질을 인식하

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의 범주와 닿기는 쉽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대화나 토론을 할 때 우리는 상대의 입장이 어떤 점에서 틀렸는가를 논증해야 한다. 상대의 입장에 어떠한 모순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진정으로 모순을 밝혀낼 수 있다면 상대도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대화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모순율이라는 원리가 처음부터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만약 자신의 입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받아도 결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상대로는 토론을 할 수 없다. 즉 모순율의 인정은 대화를 성립시키는 전제조건이다.

사설

ASF 차단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 취해야

제주에서 생산되는 돼지의 타 시·도 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제주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뜰이나 다른 지방에서 ASF의 확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됩니다.

제주도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감에 따라 ASF 위험 요인의 원천차단을 위한 후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도내 가축방역 유관단체 회의 후속조치 사항으로 24일 0시부터 도내 생산 돼지에 대한 타 시·도 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생산 돼지를 타 지방으로 운반하는 축산차량으로 인한 ASF의 유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겁니다.

또 태풍으로 인한 질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해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는 축산밀집지역과 양돈농가에 대한 집중소독이 이뤄집니다. 농장주는 농장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재도포 및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합니다. 읍면 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은 축산밀집지역 주변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한림읍 금악리 등 양돈단지 입구 양방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일부터는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타 지방은 ASF가 확산되면서 비상으로 24일 0시부터 도내 생산 돼지에 대한 타 시·도 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생산 돼지를 타 지방으로 운반하는 축산차량으로 인한 ASF의 유입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겁니다.

태풍 직전에 가입 물리는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입 농가에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 부족에다 농가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덜하다가 기상청의 태풍 북상 소식 직전에야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가가 급증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 예상진로가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보험가입이 물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태풍 '타파' 내습 직전인 지난 18일부터 20일 오후 2시 사이 재해보험 가입은 월동무 665건(5624농지)·2410ha, 시설하우스 164건·55ha로 급증했습니다. 앞서 이달 16~17일 이틀간 보험가입이 월동무 8건(19농지)·15ha, 시설하우스 10건·6ha에 그친 것과 차이가 큼니다. 이달 7일 제주를 통과한 태풍 '링링' 때도 가입이 물리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문제는 태풍 근접 시점에서는 약관상 재해보험 가입이 일시 중

단된다. 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월동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가입이 일시에 물리면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공간이 큼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데 대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나와줘야 합니다. 재해보험 가입 규모와 보상 인정범위 확대 검토 등 농가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열린마당

이음일자리 사업 통해 느낀 삶의 변화와 보람



손 승 혜
JDC 이음일자리 세미오름 매니저

신중년에 육식 하고도 반이 월전 넘는 나이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 미래를 위해 전문인 자격을 갖추고자 전문학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졸업 후 들뜬 마음으로 취업의 문을 두드렸으나 쉽지 않았다. 모든 조건은 다 갖추었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사유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됐다. 좋은 기회라 생각해 서류를 넣고 면접을 거쳐, 합격 통보와 함께 사업설명회 참석 안내 문자를 받았다. 수년 간의 직장 생활을 하다 퇴직한지 7여 년,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

지 않아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되며 큰 상실감을 겪고 있었던 터였다.

JDC 이음일자리 사업은 '정정자 연과 사람을 잇고, 신중년 인생 이모작을 잇고,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잇다'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된다. 이음일자리 사업 중에서 오름매니저로 활동하게 됐다. 선을 민오름(1차 사업)과 대를 세미오름(2차 사업)에서 탐방객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오름들을 안내해주는 것이 나의 주 업무였다. 탐방객들에게 오름을 안내해줄 때마다 마치 오름의 주인처럼 자신감이 생겼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니 하루하루가 매우 보람찼다. 또한, 소독이 생기면서 내 삶이 윤택해졌고 산을 오를 때마다 건강해지니 두 배의 기쁨으로 내 삶을 만족시켜줬다. 앞으로의 3차 사업이 더욱 기대되며 더 많은 탐방객에게 제주의 오름들을 알려주고 싶고 사랑받게 해 주고 싶다.

신중년의 일자리를 마련해 내 인생에 활기를 되찾게 해 준 JDC 이음일자리 사업에 감사함을 느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각 지자체들,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

제주도, TF팀 구성 증액활동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국비 확보를 위한 2라운드 총력전에 돌입.

정부예산안은 이달 초 국회에 제출돼 10월말~11월 중순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11월 중순~12월 1일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심의·확정될 예정.

제주도 등 지자체들은 국고확보 TF팀을 구성, 반영되지 않거나 신청 금액 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에 대한 증액활동에 총력. 부미현까지

“농산물 사은행사 일석이조”

○…농협 제주본부가 24일 제주 시권 14개 점포에서 제주산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인 고객 사은행사를 실시.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일에 이어 김녕·함덕농협에서 구

입한 물량 등 총 1000kg을 고객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무료 제공.

강승표 본부장은 “이번 행사로 농가를 돕고 소비촉진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어 농산물 사은행사는 의미가 특별하다”며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표명. 백곡탁까지

“엘리트 체육으로는 어렵다”

○…제주고의 야구부 해체 방침을 놓고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일시적으로 해결해서 구조적으로 바뀔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실상 학교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뜻을 시사.

이 교육감은 24일 열린 기자회견 회에서 인구 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엘리트 체육을 통해 선수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거론.

이어 “학교와 얘기를 나눠 고민을 하겠다”면서도 “엘리트 체육 구조에선 아이들이 10년 간 (훈련을) 버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로 변경 등으로 선수가 줄면 팀 구성도 어렵다”고 설명. 김지은까지

부 고

최원철(제주시청 주택과장) 빙모
해남윤씨 창심(향년 83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24일 11시 47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9월 25일(수)
▶ 발인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8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4층)
▶ 장 자: 양지공원

남 편 김효식
딸 김순희 사 위 김재구
선희 김영오
경희 최원철
승희 박상후
문희
희

※ 연락처 : 최원철 010-2241-4131
박상후 010-8662-6904
김순희 010-6735-8363
김선희 010-8964-5156
김경희 010-8377-4131
김승희 010-4136-3419
김문희 010-7288-3419
김희 010-8389-3321

부 고

박성수(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어머니 능주김씨 신절(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9월 24일 0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9월 25일(수)
▶ 발인일시: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분향실
▶ 장 자: 양지공원

아 들 박성수
성 진
며느리 정성자
김 승 희

※ 연락처 : 박성수 010-3693-7123

방수 단열
우 레 탄
우 레 아
석 주 개 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대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19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
2005년 원년부터 14회, 제주지역 '최대' 기록

도내 언론사 최초 '바라'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8년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환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